

언론동향(11. 15.)

《언론보도 목차》

1. (경기신문) ‘DMZ평화의 길’ 경기도 구간, 20일 개방 2
2. (MBC뉴스)예술로 무장한 비무장지대 첫 미술관 3



‘디엠지(DMZ) 평화의 길’ 김포, 고양, 파주 등 3개 테마 운영 노선도.

경기도 제공

‘DMZ 평화의 길’ 경기도 구간, 20일 개방

비무장 지대(DMZ)의 생태·역사적 가치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김포, 고양, 파주 등 3개 테마 노선이 오는 20일부터 개방된다.

‘디엠지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은 남북평화 촉진과 접경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경기~강원 비무장지대 접경지 10개 지자체에 지역의 생태·역사·안보 자원 활용 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내에는 현재 정비 작업 중인 연천 노선을 제외한 김포, 고양, 파주 3개 노선 총 87.2km를 개방한다.

먼저 ‘김포’ 구간은 총 47km로, 시암리철책길,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등의 코스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달 7일 개장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망대에서는 북한 개풍군 선전마을과 송악산 관망이 가능하다.

‘고양’ 구간은 총 29.5km 코스로, 행주산성 역사공원, 행주나루터, 장항습지 탐조대, 통일촌 군막사 등의 명소가 소재해 있다. 장항습지 탐조대의 경우 희귀 동식물의 보고로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파주’ 구간은 총 10.7km로, 통일대교, 도라전망대, 통문, 철거 GP 등의 코스로 이뤄져 있다. 도라전망대에서 북측 개성공단과 기정동 마을, 송악산, 개성시내를 관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번 개방에서는 임진각~통일대교의 1.4km 도보구간은 철새보호를 위해 제외했다.

탐방을 희망하는 인원은 한국관광공사 ‘디엠지(DMZ) 평화의 길’ 공식 홈페이지(www.dmzwalk.com) 또는 걷기 여행길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박건 기자

예술로 무장한 비무장지대 첫 미술관

입력 2021-11-13 07:54 | 수정 2021-11-13 07:55



김필국 앵커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게 예술의 힘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최근 비무장지대 DMZ에 처음으로 미술전시관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차미연 앵커

금단의 땅이던 비무장지대에선 어떤 예술 작품이 전시되고 있을까요?

최초의 DMZ 예술전시,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국도 1호선을 따라 계속 북쪽으로 향하면 나타나는 통일대교.

그 다리 건너 민간인통제구역에서 차를 타고 개성 평양 방향으로 10분정도 가면 비무장지대, DMZ의 관문인 남북출입사무소가 나타납니다.

2007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그 앞으로 좀더 가니 개성공단 사업 초기인 2003년부터 4년간 임시 출입사무소가 있던 자리에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있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돼 있던 임시 출입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정부가 DMZ 평화지대화 사업 일환으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해 최근 문을 연 이른바 유니마루입니다.

[김기혁/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장]

"DMZ와 연결이 돼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심사하던 공간을, 남북교류의 최전선의 공간을 미술관 겸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 공간이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현 기자/통일전망대]

"비무장지대 첫 전시공간인 유니마루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남방한계선이 지나가는 자리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서면 바로 비무장지대, DMZ에 서 있게 됩니다."

경계선답게 이 옥상엔 주변과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비춰지는 유명 조각가의 작품이 설치됐고요.

앞쪽 공터엔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닐수 있는 DMZ를 페인팅 글자를 통해 이곳이자 저곳이라고 선언해봤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서니 어디선가 본 듯한 작품이 먼저 눈에 띕니다.

전통적 운송수단인 코끼리와 수레가 비디오 라디오같은 현대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끌고가는 모습.

비디오아트 창시자 고 백남준 작가가 20년전 정보의 교류와 확산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이번 개관전시를 위해 DMZ로 소환됐습니다.

[장희재/유니마루 전시해설자]

"저희는 한쪽 측면에 배치를 하지 않고 코끼리를 개성 방향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개성을 통과해서 유라시아 방향으로 가면서 새로운 정보의 실크로드로 확산하는 그런 이동성을 좀더 강조한 작품입니다."

코끼리 수레 뒤편 벽에 걸린 거대한 그림.

대부분의 유해가 북한과 중국으로 송환된 파주 적군묘지에 휴전 이후에 내려온 무장공비들만은 그 존재가 부정당한채 남아있는 모습에서 남북의 경계인,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상처받는 사람들을 표현해봤습니다.

[홍순명/설치-회화 작가]

"사실 큰 사건이 벌어지면 그 큰 사건에 우리가 주목하는 사이에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큰 사건의 이슈에 가려가지고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 사건들은. 사실 이런 일들이 그런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옆으론 양쪽으로 나뉜 투명한 조각들이 다른 쪽이 보일 듯 안 보일 듯한 상태로 천장에 매달린채 기다랗게 늘어서 있습니다.

남북간을 가르고 있는 철조망, 그리고 이산가족의 눈물을 형상화하며 남북한의 슬픈 현실을 시각화했습니다.

[이성미/조각가]

"관람객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지금 인류애적으로 이산가족의 안타까운 현실, 보이면서 갈 수 없는게 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서 철조망을 레진조각으로 단순화시켜서 표현해보았습니다."

일제시대 아버지의 일터였던 파주 장단면 면사무소.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개성의 선죽교와 박연폭포.

들어갈수 없는 DMZ가 고향인 90대 할아버지는 어릴적 기억을 화폭에 옮겨놓았고,

[윤석산/통일촌 주민(92세)]

"난 그렇게까지 고향의 집이 그리더라고..저 그림은 제 고향에 제일 가깝고 정든데 그게 생각이 나서.."

젊은 사진작가는 식민과 전쟁 그리고 분단을 거친 한민족처럼 한국호랑이 역시 단절되어간 모습을 국내외 기록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김신욱/사진작가]

"우리가 자유롭게 오가던 길이 있었다면 그게 한국호랑이도 똑같이 오갔던건데 그런 것들이 현재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제 단절이 돼 있고 저는 그런 단절을 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유니마루 인근에 있는 최북단 기차역.

평양행 탑승구는 있지만 탑승객은 없어 을씨년스럽기까진 한 이곳의 대합실은 5개의 파도가 천장과 벽을 타고 휘감았습니다.

파도 속 영상과 함께 시시각각 변신하며 한곳을 향해 흘러가는 모습으로, 일렁이는 변화 속에서도 하나가 되고자하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이예승/미디어 아티스트]

"이 역이라는 개방감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사실은 이 모습 자체가 어디서 봐도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우리가 부드러움과 화합된 그런 공생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걸 이미지화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철거된 파주의 군 감시초소 자리엔 DMZ의 자연과 생명을 상징하는 조각물이 설치됐고, 동해선 출입 사무소가 있는 강원도 고성 제진역에도 10개의 미술작품이 들어서는 등 이번 전시엔 국내외 유명작가 32명의 34개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정연심/개관전시 예술감독]

"여전히 DMZ는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전시에서 접경지대 사람들의 삶을 반추하고 예술이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곳에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분단과 대결의 상징 DMZ.

금단의 땅이던 비무장지대는 이렇게 예술로 무장하며 평화공간으로의 발걸음을 시작했고 작품 하나 하나를 통해 그 의미있는 시작을 알렸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